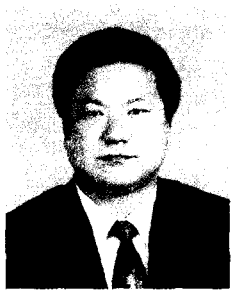
협죽도

▶ 과명 : 협죽도과
▶ 학명 : *Nerium indicum*
▶ 영명 : Sweet-scented Oleander, Indian Oleander
▶ 한명 : 來竹桃, 柳桃花
▶ 일명 : きょうちくとう



최 명 섭
임업연구원

잎은 대(竹)나, 버드나무와 비슷하고 꽃은 복숭아와 비슷하다 하여 협죽도라 이름이 붙은 나무로 인도가 원산인 아열대 식물이다. 학명에서 속명 Nerium의 뜻은 습한곳에서 잘자란다는 뜻이며 종명 Indicum의 뜻은 인도가 원산이라는 뜻이다. 제주도에서는 도입 당시부터 정원수나 가로에 관식으로 식재하였다. 난대지역에 속하는 남부지방의 부산, 충무, 마산, 여수, 완도등에서도 오래전부터 가로 화단에 식재하여 감상하였다. 중부지방에서는 화분에 식재하여 꽃을 감상하던 우리와는 오래전부터 매우 친근한 나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수목의 독성은 상당히 강하다. 제2차대전시 일본 병사가 협죽도의 가지를 잘라 젓가락으로 사용하여 식사를 했을 때에 중독이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1. 생태적 특성

인도 원산으로 우리나라에 1920년경에 도입되어 제주도에서는 야외에 식재하고 내륙지방에서는 분에 식재하여 관상하는 상록활엽관목으로 높이 5m까지 자라며 밑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 울타리 같은 수형을 만든다. 내한성이 약하여 야외에서 월동이 불가능하며 각종 공해에 강하고 토심이 깊고 사질양토의 토양에서 생장이 신속하며 이식과 번식이 잘되고 재배도 손쉽다.

2. 형태적 특성

잎은 원줄기에서 돌려나고 버드나무 잎처럼 선형이며 길이

▲ 협죽도

▲ 협죽도

7~15cm, 넓이 8~20mm로 두껍고 양면에 털이 없으며 길쭉하다. 꽃은 7~10월에 새로 자란 가지끝에 취산화서로 피고 지름 4~5cm로 흔히 적색이나 백색도 있으며 겹꽃도 있다. 열매는 선형으로 길이 10cm정도의 골돌이 달리고 이안에 들어있는 종자에 연한 갈색 털이 빽빽하게 나있다.

꽃잎이 겹으로 된 것을 많첩협죽도(for. plenum Makino)라 하고 흰꽃이 피는 것을 흰협죽도(for. leucanthum Makino), 노랑꽃이 피는 것을 노랑협죽도(for. lutescens Markino)라 하고 꽃과 잎의 형태에 따라 수많은 재배 품종이 있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대기오염이나 각종 공해에 강하여 가로변이나 공장지대에 군식으로 식재하면 일년내내 아름다운 잎과 꽃을 감상할 수 있고 도로와 주택이 접한곳에서는 열식으로 식재하여 방음수벽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나 남쪽지방에서는 옆집과의 경계부나 해안변의 가로수로도 매우 좋다. 중부이북에서는 큰 분에 심었다가 봄에 분채 내어다 심고 겨울에는 얼지 않게 실내에 반입하는 방법도 있다.

4. 번식법

번식은 꺾꽂이로 한다.

□ 삽목번식

꺾꽂이가 가장 잘되는 식물이다. 한 겨울만 제외하고 어느 때나 할 수 있으며 그해 자란 가지로 다소 굳은 것을 길이 20cm 길이로 잘라 그늘진 곳 땅에 꽂으면 된다. 이 밖에 새순을 잘라 물을 넣은 병에 꽂아 두어도 뿌리가 잘내린다.

□ 포기나누기

밑쪽에서 나오는 곁 가지나 길게 자란 가지등 어느것이나 휘어서 땅에 묻었다가 뿌리가 내리면 잘라 옴겨서 새로운 개체로 만든다.

5. 그 밖의 용도

푸른색의 가지와 버드나무같은 잎이 아름답고 7~10월에 피는 꽃이 아름다워 꽃꽂이소재로 활용 할만하다. 조경수